

참여·경제·문화 중심 '미래 100년 부안' 건설 다져

지난해 7월 1일, 부안군은 군민들이 염원하는 완전히 새로운 부안 실현을 위한 힘찬 항해를 시작했다. '소득, 행복, 사람'을 기치로 군민의 소득이 향상되고 행복이 커지고 부안에 사람이 늘어나는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으로 담대하고 장엄한 민선 7기 부안군이 펼쳐졌다.

민선 7기 부안군은 현장 중심 소통행정을 천명하고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세웠다.

'참여행정', '지역경제', '문화관광', '교육복지' 등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면서 30년 후 소멸도시가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 100년 웅장한 부안군 건설을 위해 하나 둘 단추를 채우기 시작했고 그 신명나는 변화의 물결은 어느덧 1년을 맞았다.

지난 1년은 민선 7기의 비전을 구체화시켜 군정에 접목시키는 시간이었으며 부안의 새로운 희망가를 써 내려오는 과정이었다.

민선 7기 부안군은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과 군민소득 향상을 군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부안-3UP(소득 UP·사람 UP·행복 UP) 비전'을 통해 부안을 30년 후 사라질 도시가 아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 취임식

▲ '허례허식 탈피' 군민 삶의 현장 향한 진심

민선 7기 부안군의 핵심은 허례허식과 겉치레 행정을 걷어내고 군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해법을 모색해 지역발전과 군민행복을 실현하겠다는 진심이다.

허례허식과 겉치레 행정 탈피는 공무원 스스로가 일하는 조직문화를 통해 일중심의 조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부서간 칸막이가 없는 협업행정과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를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8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3단계나 수치 상승해 역대 최고인 2등급을 달성했으며 2019년(2018년 실적) 지자체 국정시책 합동평가 전복 평가에서 군부 1위를 달성해 인센티브 1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또 2018년 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 1억원을 확보하는 등 일하는 조직으로 빠르게 거듭나고 있다.

특히 모든 행정의 중심을 군민에 두고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면서 군민의 뜻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참여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을 2018년 11억원에서 2019년에는 32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 분과위원회를 확대 편성하고 주민교육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체계를 개편했다.

앞으로 부안군은 2030 종합발전 영역을 통해 지속성장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해 군민중심의 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 부안 방문



우수재자체 선정

겉치레 행정서 '일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
분과위 확대로 주민참여예산 효율성 높여
경제발전 특위 출범·수소 인프라 기반 구축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 휴양도시 조성 집중

▲ '소멸도시 우려 불식' 미래 100년 지속가능 발판 마련

민선 7기 부안군은 30년 후 소멸도시 우려 속에서 출발했지만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 출범과 수소산업 인프라 기반 구축 등으로 통해 이를 불식시키고 미래 100년 지속가능한 부안 실현의 발판을 차곡차곡 마련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취임과 동시에 국가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국회의원 보좌관과 전북도의원 등을 거치면서 국회와 지방의회의 풍부한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역대 최대인 4374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며 예산 6000억원 시대를 열었다.

특히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을 국회단체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김종희 국회의원은 물론 여야를 넘나들며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해 국회 예결위위원회에서 추가 확보하는 정치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 새만금 내측 어업인들이 오랜 숙원사업이던 가력화 확대사업을 위해 관계기관 및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물론 당초 예산액보다 144억원 증액된 1012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는 국가예산 4500억원 달성을 위해 정부부처 및 국회를 매일 방문하고 있으며 간부회의 등을 통해 각종 아이디어 개발, 다양한 신규사업, 공모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가 3년간 총 3조원 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생활SOC 사업 발굴에도 적극 대응해 생활SOC 복합화시설 15개 사업을 발굴, 3개년 계획 가배분 안에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장기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부안군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도 지난 4월 출범시켰다.

지난 5월 10일 부안군 택시요금·운임 인상에 대한 심의를 개최했으며 현재 지역경제와 문화관광, 산업환경, 교육복지 등 부안의 전반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여반가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을 40명 이내에서 50여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2차 위원회를 개최해 소위원회별 부안군 발전방안 제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수소경제 활



현장 행정활동

성화 방침에 따라 수소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부안군 미래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 '세계잼버리·변산해수욕장 활성화' 글로벌 휴양관광 도시 시동

민선 7기 부안군은 2023년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와 변산해수욕장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명품 휴양관광도시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2023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스카우트 저변 확대를 위해 스카우트 대원 및 지도자를 370명 양성하고 국제청소년 캠프, 국제로버무트 등 국제 스카우트 행사를 유치했으며 앞으로 스카우트 지도자 교육 등 스카우트 관련 행사를 부안에 집중토록 할 방침이다.

세계잼버리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잼버리 수상·산악과 정활동장 개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잼버리 경관쉼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문화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운동은 부안지역 사회단체와 협약을 통해 '친절·질서·정결' 3대 문화운동을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해 세계인이 부안을 방문했을 때 최고의 서비스로 다시 방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해 2023년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부안휴게소의 건립 당위성을 설명하고 서해안고속도로 양방향에 부안휴게소 건립을 약속 받았으며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에 스마트융복합 멀티플렉스를 조기에 착공해 AR/VR 기반의 실감형 콘텐츠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민자유치를 통해 대형숙박시설과 액티비티 체험시설 구축을 위한 제안서를 받아 검토 중이며 전북교육수원원(총 297억원 규모) 건립이 확정돼 전북도교육청에서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설계 발주에 들어감에 따라 서해안 3대 해수욕장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해양체험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공항 마린나 조성사업을 마린나 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며 부안국가지질공원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하고 세계지질공원 인증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부안군 대표축제인 부안마실축제 역시 지난 5월 제7회 축제 개최기간 15만 3000여명이 방문해 80억원의 소득을 창출했으며 올 부안마실축제는 기존 거리형 축제에서 공원형 축제로 변모하고 야간 경관 프로그램을 신설해 군민과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개발공사는

토지개발 등 수익사업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임대주택 등 공익목적 사업에 재투자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을 도모합니다.

전북개발공사